

兒童韓服에 나타난 色과 紋樣에 관한 研究

- 박물관 소장 유품과 제작된 실물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전임강사 심 화 진

目 次	
I. 서 론	2. 아동한복의 문양과 의미
1. 연구 목적	1) 문 양
2. 연구 방법	2) 의 미
II. 본 론	3. 아동한복의 색과 문양의 계승
1. 아동한복의 색과 의미	III. 결 론
1) 색	참고문헌
2) 의 미	ABSTRACT

I. 서 론

1. 연구 목적

오늘날 아동들의 한복은 산업화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명절이나 가정내외의 행사 때에 주로 입혀지고 있다. 또한 한복은 어린 시절에나 입어보는 옷으로 생각하거나 청소년 시기가 되면 한벌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복이 갖는 장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자주 입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아동들의 한복은 현재에 자주 입혀지지는 않지만 어느 옷보다도 그 원형이 많이 전수되고 있다고 본다. 아동한복은 색동 저고리, 까치두루마기, 굴레, 오방낭자, 복건 등으로 예로부터 아동들이 주로 착용해왔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활용되고 있

는 옷이다.

명절이나 특정한 날이라도 이러한 아동복이 원형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후손에게 전통 생활 문화 전수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매우 고무적이며 환영할 일이다. 또한 평상시 입어왔던 일상복과는 다르게 아동들에게 호감과 기쁨을 주는 전통 한복은 아이들의 마음을 즐겁게하는 심리적 만족을 주는 훌륭한 의복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차원 앞서 이와 같이 전수되고 있는 아동한복의 색과 문양이 단순히 곱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아니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탐구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예로부터 자녀교육과 훈육에 쏟았던 부모들의 정성은 문헌과 가훈 등 여러 기록을 참고해 볼 때 크게 중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적은것 하나 하나에도 삼가 조심하며 자녀에게 혹시라도 미칠 악을 물리치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왔다. 따

* 이 논문은 199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라서 부모들은 아동복을 지을때도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성을 다하여 곱게 지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색은 권위나 권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사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대적 윤리관과 생활 철학등 인간의 의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¹⁾ 그리고 문양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생활 감정을 표현하기도하며, 예술 세계와도 차원을 달리해 보다 소박하고 밀접하게 우리생활에 관계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시대적 흐름이나 그 시대인들의 정서 사상 등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복식에 나타난 색과 문양에 대한 연구는 그것을 사용하는 민족의 사상, 윤리, 생활 감정, 철학 등을 나타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 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아동복의 색과 문양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생활 문화적 차원의 분석이 될 것이며 옛 아동복의 색과 문양의 계

승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동한복에 나타난 색과 문양에 관한 연구로 아동한복의 색상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문양의 특징과 의미를 선행연구와 관련서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립 민속박물관과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현대에 제작된 아동복으로는 이리자,³⁾ 박선영,⁴⁾ 정정완⁵⁾의 작품과 작품사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리자, 박선영은 국내에서 전통한복의 재현을 위한 많은 작품 제작을 하여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선택하여 조사하였으며 정정완의 작품은 국내 무형문화재 침선장으로 전통한복의 원형을 찾는데 기여하는 국가에서 공인된 분이므로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표 1> 조사된 아동복

구분 \ 의복	치마 저고리	까치두루마기 오방장	당의	바지 저고리 마고자	전복	댕기	굴레	남바위 조바위	주머니	복건 호건
국립민속박물관	2	2	1	3	1	2	1	3		2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2	2			1	2	5	1	3	4
박선영	7	3	1	8	1	1	1	4	3	3
정정완	2	2	1	2	2	1	1			2
이리자전시관	3	3	1	3	2				2	2

1) 이은미, “전통색채에 관한 연구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8.

2) 김진아, “여자한복의 문양과 배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13~14.





3) 이리자, 1935년출생,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74, 이리자 전시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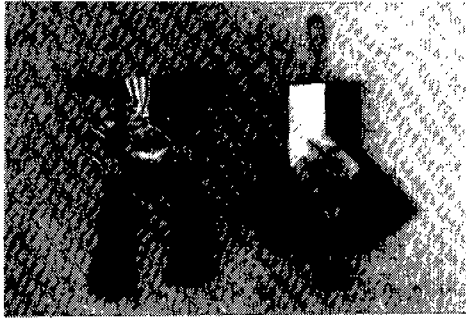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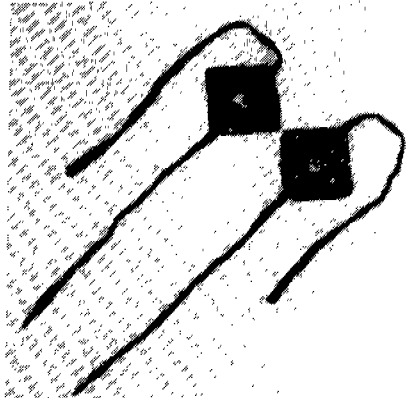

4) 박선영, 1931년출생, 박선영 한복 연구실 운영, 서울시 시문문화재 침선장으로 지정.

5) 정정완, 1913년생,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54~42, 1989년 중요 무형 문화재 89호 침선장으로 지정.

〈사진자료〉

유 품	제작된 실물
 <p>〈사진 1〉 저고리(1900年代) 두렁치마(1880年代) (출처 :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p>	 <p>〈사진 2〉 손누비저고리, 두렁치마 (출처 : 박선영 작)</p>
 <p>〈사진 3〉 저고리 풍차바지(1910年代) (출처 :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p>	 <p>〈사진 4〉 풍차바지, 저고리 (출처 : 박선영 작)</p>
 <p>〈사진 5〉 까치두루마기(1940年代) (출처 :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p>	 <p>〈사진 6〉 까치두루마기 (출처 : 정정완 작)</p>

유 품	제작된 실물
 <p>〈사진 7〉 골레 ① 1800年代 ② 1850年代 (출처 :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골레(조선시대후기) (출처 : 고려대 박물관 소장)</p>	 <p>〈사진 8〉 골레 (출처 : 박선영 작)</p>
 <p>〈사진 9〉 호건(1800年代) (출처 :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p>	 <p>〈사진 10〉 호건 (출처 : 정정완 작)</p>
 <p>〈사진 11〉 복건(1750年代) (출처 :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p>	 <p>〈사진 12〉 복건 (출처 : 정정완 작)</p>

유 품	제작된 실물
 <p data-bbox="201 706 611 767">〈사진 13〉 조바위(조선시대말기) (출처 :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p>	 <p data-bbox="822 706 1098 767">〈사진 14〉 조바위 (출처 : 박선영 작)</p>
 <p data-bbox="236 1195 572 1256">〈사진 15〉 오방낭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p>	 <p data-bbox="822 1228 1098 1289">〈사진 16〉 오방낭 (출처 : 박선영 작)</p>
 <p data-bbox="201 1713 611 1774">〈사진 17〉 뱃씨(1890년대) (출처 :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p>	 <p data-bbox="822 1713 1098 1774">〈사진 18〉 타래버선 (출처 : 박선영 작)</p>

II. 본 론

1. 아동한복의 색과 의미

1) 색

사람이 색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연대는 15-20 만년전의 빙하시대로 추정되며 이 시기에는 사체를 적토(赤土)에 매장 하거나 赤土로 칠을 했던 흔적이 유물에 나타난다. 이후의 색의 사용은 서서히 발달되면서 기원전 1500년 경에 이르러 프랑스나 스페인의 동굴벽면과 천정에 그려진 동물들의 그림에서 채색을 발견 할 수 있다.⁶⁾

우리나라에서도 색채는 선사시대부터 생활속에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관습적인 사상과 제도 유행에 따라 변화하면서 색에 대한 기호도도 다르게 변모하였다. 복식은 시대와 사회의 생활문화를 잘 살펴 볼 수 있는 분야로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리와 내적인 표현 곧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기호이며 상징⁷⁾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식의 색은 색채 감각 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나 상징성이 중요시된다. 衣冠으로 儀禮와 신분에 제한을 두던 고대사회에서는 東西를 불분하고 색은 복식제도의 중요한 요소였다.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온대에 속하는 지리적 기후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는 백색을 중심으로 한 단색계의 담백한 색조를 선호하고 또한 동양 문화권에서 사상체계의 주축을 이루어 왔던 四神思想이나 陰陽五行思想의 원리에 순응하며 주술적인 색채관이 형성되었다. 四神思想에서는 사방의 수호신을 상징한 東, 西, 南, 北으로 靑色, 白色, 赤色, 黑色이

며 음양 오행사상에 의미를 둔 색은 동, 서, 남, 북과 중앙의 五方이 주된 골격을 이루며 그 방위에 해당하는 5가지 正色은 陽 즉 청, 적, 황, 백, 흑색이며 각 방위의 중간에 해당하는 5가지 間色은 陰에 해당되며 벽색, 녹색, 홍색, 자색, 유황색을 말한다. 이 10가지 색이 우리문화의 기본색으로 전통을 이어왔다. 복식에 보이는 색채의 시각적 효과는 복식의 형태보다 강렬하므로 신분계급의 구분, 성별의 구별을 분명히 하기위해 服色禁令이 음양 오행설에 따라 적극 활용되었고,⁹⁾ 「三國史記」의 흥덕왕 복식금제¹⁰⁾에서의 赭黃色 등의 禁, 「世宗實錄」¹¹⁾에서의 紫·紅色의 禁, 「星湖僊說類選」¹²⁾에서의 白色의 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홍결감과 남색안감, 연두색 결감과 다홍안감등 전통적인 색 배합으로 우리복식은 구조상 원색 중심의 전통배색이지만 형태상의 단조로움을 다양한 배색미 조화미로써 한층 더 우아하고, 세련되며 화사한 멋과 개성미를 나타낼 수 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공통으로 흰명주와 고운무명으로 만든 겹저고리나 누비저고리를 배넛저고리로 입는다. 한두달이 지나 아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배넛저고리 밑에 앞만 가리는 두렁치마를 입힌다. 그러다가 어느정도 자라 배넛저고리를 벗게 되면 남아, 여아 모두에게 뒤가 트인 풍차바지를 입힌다. 돌이 되면 완전히 남녀 버리 모양이 달라진다.女兒는 가리마를 타고 바둑판 모양으로 종종머리를 땅아 굴레를 씌우고 다홍치마에 색동저고리를 입힌다. 그리고 타래 버선을 신고 꽃갓신을 신었다. 男兒는 흰 풍차바지에 색동저고리를 입고 까치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돌

6) 윤애근, 「색채학 개론」, 도서출판 큰바사포, 1984, pp.9~10.

7) 한명숙, “한국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36.

8) 民俗學會, 「衣食住·冠婚喪祭·民俗理論」, 서울 교문사, 1990, p.71.

9) 나승미, “색동에 나타난 色의 象徵性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16.

10)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色服 新羅條.

11) 「世宗實錄」, 卷三年正月條, 卷百五, 二十六年 閏七月條, 卷三十五, 九年二月條.

12) 安鼎福, 「星湖僊說類選」, 卷之下 經史門五.

띠를 땀다.¹³⁾ 머리에는 복건이나 호건을 씌웠다.

① 저고리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왕자아기를 4月 8日 때때 옷¹⁴⁾으로 저고리와 周衣를 색동 관사로 지은 件記가 있다.¹⁵⁾ 어린아이의 돌옷으로 차용된 색동 저고리는 일반 저고리와 같으나 소매를 갖가지 색의 천을 이어붙여 만든 점이 다르며 조선조 어린이들의 고유한 의복모습을 상징했다. 돌 저고리로 색동 옷을 입을 때에는 남녀 구별없이 저고리 길이를 저고리와 포의 중간정도로 길게하였다. 색동 저고리에 사용된 색은 적색, 황색, 흰색, 청색, 초록색, 분홍색의 6가지 색으로 된 것이 많았다.¹⁶⁾ 그 외 어린이 저고리는 자주 빨아 입을 수 있게 누비로 많이 만들었고 백일에는 100조각의 천으로 지어 입히고,¹⁷⁾ 돌 때에는 색동저고리를 갖가지 천으로 이어 붙여 만드는 것은 수명 장수를 기원하기 때문이다.

② 까치 두루마기

까치 두루마기는 설날을 손 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그 하루전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의 이름을 붙여 설날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어른들의 배려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까치 두루마기는 다섯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옷으로 五方色중 가운데 색인 황색을 앞 중심의 겹선에 사용하고 길은 연두색, 무는 자주색, 안선은 분홍색, 깃과 고름과 돌띠는 남자아이는 남색, 여자아이는 홍색이나 자주색을 주로 사용했으며 소매는 색동으로 달았다.

금기숙¹⁹⁾은 색동이 부착된 저고리나 까치 두루마기의 길의 색상을 초록이나 청, 황, 적색 등의 원색이 사용된 것을 흥미롭다고 하며 원색 조화의 극치를 보이는 색동은 의복길의 색상으로 조선 복식색의 주조색은 정갈한 색채와 조화를 이루지 않고, 색동에 사용된 원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③ 마고자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옷으로 대원군이 만주 保定府에서의 幽居生活에서 풀려나와 귀국할 때(1887年) 입고 돌아와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다.²⁰⁾ 남자어린이 마고자는 저고리를 단색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고자에는 색동 소매를 달아준다. 색동 소매를 달아 만들어준 마고자를 색동저리라 하며 적·황·청·백·녹색의 색동 소매를 만들어 단다.

④ 굴레

굴레는 조선후기 상류층 가정에서 아동들에게 사용됐으며 돌을 맞이한 어린이가 많이 쓴다하여 돌모자라고 하는데 4~5세까지의 어린이가 주로 착용했다.²¹⁾ 일반적 형태는 정수리를 덮은 帽部가 세가닥 또는 여러가닥으로 만들어졌으며 빨간색 실과 수로 된 화판이 부착되며 뒷통수 조각에는 모란, 연꽃이 화려하게 수놓아져있다. 굴레는 아홉조각을 꿰매지 않고 겹쳐놓아 방한모로써 쓰여졌고 여름용 굴레는 얇은 비단을 사용해 3~5조각으로 간격을 두고 연결하여 통풍이 잘되도록 하였다.²²⁾ 여러가닥 굴레는 흑, 적, 자, 남, 연두, 분홍

13) 石宙善, 「衣」, 고려서적주식회사, 1996, p.169.

14) 때때옷 : 빛깔이 알록달록하여 고운 어린 아이옷,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 사전」, 삼성이메아, 1986, p.993.

15) 김용숙, “李朝後期 妃嬪들의 四節 服飾 및 衣次”, 「아세아 여성 연구」 제5집, 1966, p.185.

16) 심화진, “韓國의 傳統兒童服に見られる色トシ研究”, 衣生活研究會, 「衣生活」第38卷4, 1995, p.31.

17) 조효순, 「한국 복식 풍속사 연구」, 일지사, 1988, p.185.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5권, 웅진출판주식회사, 1991, p.131.

19)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111.

20) 유희경, 「한국복식 문화사」, 교문사, 1981, p.421.

21) 온양 민속 박물관 학원 연구실 특별전 도록 2, 「조선시대의 관모」, 온양 민속 박물관, 1988, p.99.

22) 석주선, 전계서, p.214.

등 가닥마다 서로 다르게 배합하였고, 세가닥 굴레는 남, 흑, 연두, 적색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화려한 원색 조화는 바탕과 대조되어 높은 視認度를 보이며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⑤ 오방낭자

염낭과 같은 둥근 모양으로 五色의 비단을 사용하여 만든 주머니로써 청, 백, 홍, 흑의 네가지색을 주머니 전면에 동, 서, 남, 북의 방위를 맞추어 배치하고 중앙에는 황색으로 사자이나 원형을 만들어 대었다.²³⁾ 「宮中撥記」를 보면 正月 첫 亥日에 宮內는 물론 宗親들에게 주머니를 下賜하고 있다. 이 주머니는 내인들이 정성으로 만든 것으로 符籙같은 뜻을 지녔기 때문에 환영받던 선물이었다 한다.²⁴⁾

주머니 속에는 黃豆를 볶아 紅紙에 싸서 넣었는데 이는 一年내내 액을 면하고 福을 비는 뜻도 있고, 주머니의 볼륨을 유지케하는 역할도 한 것 같다.²⁵⁾

2) 의 미

전통 아동복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주로 음양 오행사상에서 나온 정색과 간색을 배합해서 사용한 색동이었다. 색동은 오색으로 염색하거나 또는 오색 비단 조각을 잇대어서 만든 어린이 소맷길²⁶⁾을 말한다. 색동의 형태는 저고리 뿐만 아니라 치마, 마고자, 五方囊子, 두루마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상고시대에 동양의 다른 나라 복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일종의 줄무늬라고 할 수 있다.

색동의 사용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여지는 것은 高句麗의 德興里 古墳의 견우 직녀도와 수산리고분 벽화의 귀부인, 중국의

西安 執失 奉節墓에서 출토된 홍의 무녀도, 일본의 高松塚 벽화의 인물들이 착용한 세로의 줄무늬에서 색체가 다른 형태의 치마를 볼 수 있는 것이 처음이다. 색동은 성인의 복식보다는 어린이의 복식에 많이 사용되었다. 아동복에 사용된 색동의 의미를 선행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여 논의해 보자 한다.

① 액을 피하려는 주술적 성격

색동옷의 색조화는 화려한 색채조화로 여러 사람의 시각에 노출시켜 액을 막으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생각된다.

아이들의 백일이나 돌 때 만들어주는 수수 팔경단이나 喪家에서 팔을 사용하는 것들은 단순히 곡물이 사용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속적 차원에서 보면 색동에 사용된 색의 배합이나 배열에는 陰陽의 색인 靑, 赤과 오행색인 靑, 赤, 黃, 白, 黑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오방색은 瘦鬼를 쫓을 때 사용되고, 오방색 중에서도 陽氣가 왕성한 赤, 靑色이 민간 신앙에서 양귀법(糧鬼法)으로 등장되었다.²⁷⁾

아동복에서의 색동은 아이들의 천진함과 상통하는 것으로 백의 민족의 복식 문화 속에서 파격적인 색조화로 가장 호화로운 색채표현의 극치를 이룬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아이들이 미래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갈 귀중한 인물임을 부각시켜 시각적으로도 주변과 분리시키는 효과와 나쁜 것으로 부터 신변을 보호해준다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의도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② 조화미와 삶의 吉祥의 표현

아동복에 많이 사용된 五色은 五行, 五德, 五味와 같은 관념으로 “만물의 조화”라는 뜻을 담고

23) 김영숙, 「한국 복식사전」, 민문고, 1988, p.361.

24) 석주선, 「한국 복식사」, 寶晉齋, 1971, p.192.

25) 조효순, 「한국인의 옷」, 밀알출판사, 1995, pp.247~248.

26) 신기철·신용철, 전계서, p.1792.

27) 이미석·이선재, “향(香)집에 관한 연구”, 「服飾」, 33호, 1997, p.134.

있다.²⁸⁾ 색동의 조화는 주로 단색을 사용하는 담백한 의복색에서 조화를 이룬 심미적인 면을 강조하는 역할도 한다. 흑색은 모든 빛이나 색을 흡수하는 색으로 신비, 정숙, 엄숙성을 나타낸다.²⁹⁾ 이 흑색은 색동마다 공통적으로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吉祥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본다. 흑색의 생략은 어두운 면의 생략이며 밝음의 강조이므로 색동의 표현은 긍정적인 면의 강조이며 길함을 의미하는 직접적 표현 수단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색동은 어린이의 순수함과 친진난한함을 느끼게 하므로써 노부모의 회갑, 회혼례에서도 나이든 자식도 색동옷을 입고 즐거워 하는 것을 옷어른의 안녕과 장수를 가문의 福으로 생각하고³⁰⁾ 옷차림을 통하여 孝를 표현한 것을 보여준다.

③ 아동의 색감 발달 및 미적욕구 충족

전통 아동복의 특징은 두가지 이상의 색을 조화시키는 배색에서도 나타난다. 이때 사용된 색채는 동색 계열의 배합보다는 원색적이며 화려하고 귀엽고 생기 발랄한 느낌의 색이었다. 이는 아동들의 색감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바라 생각된다. 아동들의 심성이 밝고 곱게 자라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색동의 색채 감정은 五方色에서 시작했거나 무지개에서 출발했건, 조선시대 사람들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시각적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사람들의 미적 요구를 충족³¹⁾시켰다고 본다.

④ 복락의 기원

아동복은 알록 달록한 다양한 색의 천을 연결하는 정성스러움이 그대로 표현 되었다. 색동을 만드는 일은 일종의 치성을 드리는 행위로 인식 했

었을 것이다. 수명 장수를 기원해 백일에 100조각의 천으로 모아 옷을 지어 입힌 것³²⁾과 같이 공들여 만든 색동옷을 입는 아이들에게 福이 있기를 기원하는 福樂祈願의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⑤ 신분을 초월한 아동 존중

전통사회는 服飾制度에 따라 계급에 맞는 옷의 색을 달리하여 입었다. 유채색은 화려함, 사치 권위의 상징으로 권력층의 전유물 이었다. 서민이 유채색 옷을 입으면 단죄하거나 벌할 정도로 규제해왔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에는 오색 찬란한 색을 사용했다는 점은 당시 아동에 대한 존중의식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즉 계급을 초월하여 화려한 색채조화로 아동복을 만들어 입힘으로써 존중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2. 아동한복의 문양과 의미

1) 문 양

문양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생활 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생활속에서 하나의 종교적, 사상적 습관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여 전해져 내려왔다.³⁴⁾

문양이란 각종 장식물에 있어서 인간의 美意識을 표현하고 그 내면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 경험하였던 무용담도 들을 수 있고 가공할 만한 천재지변에 대한 의경심과 탄생에 대한 신비

28) 임동권, 「한국민속논본」, 동경문화사, 1973, pp.90~93.

29) 千村典生, 「服裝の色彩」, 동경 鎌倉書房, 1970, p.29.

30) 박경자, “한복의 구성면에서 본 상징성”, 「한국 복식 문화논고」, 신구문화사, 1983, p.147.

31) 금기숙, 전계논문, p.121.

32) 조효순, 전계서, 1988, p.185.

33)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조형연구」 제3권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 연구소, 1984, p.167.

34) 鄭賢珠, 「朝鮮時代 服飾文樣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3.

와 죽음에 대한 공포,壽와 福을 누리며 자손만대 번창하고 부귀영화와 풍요로운 삶을 염원하는 마음이 깃들여 있고 또한 來世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조선조에 와서는 궁중을 중심으로 付金을 널리 써서 직금보다 예가 많으며 이를 위해 京工匠중에 金箔匠 2인을 두고 있었다.³⁵⁾ 조선후기에는 付금이 더욱 흔해져 民家에서도 땡기류 등 부분적으로 부금을 했음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 금박은 織金을 대신한 것으로 무늬를 새긴 금박판에 접착제를 발라 옷감 위에 찍은 다음 금을 두드려 아주 얇게 만든 금판이나 금가루를 그 위에 붙인 것이다. 이 또한 짧은 시간 안에 화려한 장식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는 여러가지 색실로 조화를 피하면서 무늬를 사실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생동감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³⁶⁾

한국인의 복식에 있어서의 문양의 특징은 꾸밈없는 자연성과 기술적인 완벽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변되는 無紋의 復歸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복식은 복식 자체가 절제된 선과 여백의 은은한 멋을 추구하여 장식성을 거의 배제하고 있었으므로 문양이 사용된다 하여도 직물의 문양³⁷⁾으로 표현되곤 하였다.

① 까치 두루마기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소장인 까치 두루마기에는 卍자 문양, 당초 문양, 표주박 문양 등이 사용되었다. 卍자 문양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미, 서구 등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일찍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속하는 도자기에서 발견되고 있다.³⁸⁾ 만자는 吉祥萬福이 모이는 것으로 여기며 십자의 네 끝에 계속 연결해서 쓰면 不斷長久

의 뜻을 나타낸다. 이는 좌우로 또는 전면적인 무늬의 기본단위로 흔히 응용되었으며 佛心, 長壽 등 많은 뜻을 담고 있다.

당초 문양은 어떤 특정 식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공상적인 화초이다. 줄기나 덩굴에 의해 뻗어 나가는 형태로 主紋이 되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국화당초, 목단당초 등으로 불린다. 좁고 긴 표면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며 어울려 산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당초문은 고구려 遇賢 里大墓壁畫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려시대를 고비로 차츰 쇠퇴되어 가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단순화된 형태로 직물등에 사용되었다.³⁹⁾ 표주박 문양은 수많은 자손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박 속에 많은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꽃다발을 결들인 박의 문양은 많은 자손, 번영 그리고 장수를 상징한다. 박은 도교의 여덟가지 표상중의 하나로 상징되고 있다. 그러나 박 하나만의 표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② 굴레

굴레는 적색, 남색, 녹색, 황색 등의 비단으로 화려한 원색조화는 바탕과 대조되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굴레에 사용된 문양에는 어린아이의 장래를 축원하는 강한 염원의 표현이 되는 문양이 사용이 되었다. 壽, 福, 壽, 壽福康寧, 富貴多男 등의 吉祥文字를 수놓거나 金箔을 하였다. 굴레에는 매화, 국화, 연꽃, 박쥐, 학, 나비 등의 각종 吉祥紋樣을 화려하면서도 조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고대 박물관 소장 굴레는 甲菊花, 蝴蝶, 蝙蝠, 石榴 등의 모양이 보이며 吉祥語는 康寧, 禮義廉恥의 卍자 대신 富자를 박은 것을 보아 길상어를 모두 동원해서 어린이의 장래 행복을 비는 부모의

35) 「經國大典」, 卷6 工典 京工匠條.

36) 조효순, 전계서, pp.30~31.

37) 김진아, “여자한복의 문양과 배색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38) 朴永眞, “韓國傳統의 主題分類를 통한 變遷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14.

39) 林喜淑, “朝鮮時代 織物에 나타난 紋樣考察”,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33~34.

마음을 엿볼 수도 있다.⁴⁰⁾

③ 땡기(唐只)

어린이용 땡기에는 뒷머리가 채 자라지 않는 어린이의 장식용 땡기로 도투락 땡기가 쓰였다. 모양은 어른의 예장용과 같으나 크기는 훨씬 적다. 작은 도투락 땡기에 끈을 달아 뒤통수 밑에다 바짝 달아 줌으로써 어린이의 모양을 화사하고 귀엽게 장식한다.

그 외 말뚝땡기와 땡씨「梨種子」가 있다. 땡기에는 주로 幾何紋, 雷紋, 亞字紋, 卍字紋, 吉祥語紋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땡기 하나에 열가지 가까운 문양을 박아 놓았다.

雷紋은 기하무늬로는 강한 하늘의 신비로움을 나타내며 직선을 이리저리 꺾어서 번개모양을 형성한 것으로 單獨紋보다는 다른 吉祥紋樣의 背景紋으로 쓰였다.

亞字紋은 너문의 조형심리에서 발전된 무늬이다.⁴¹⁾

幾何紋은 점, 선, 원등의 기하학적 기본요소로 이루어진 문양으로서 인류 최초의 장식 본능의 표현 양식으로 민족을 불문하고 원시 생활의 한 요소를 발생되었다.

④ 조바위, 남바위

조바위는 여자용 방한모로 國末에 생긴 것으로⁴²⁾ 가장 널리 사용된 것으로 부녀자들의 장식을 겸한 의출모로 쓰였다. 일반적 형태는 정수리는 뿔려있고 앞 이마와 양 귀 등 머리 전체는 덮어주는 형태이며, 앞 뒤에는 술이 달려 있다. 수를 놓거나 금박을 한 것은 대개 어린이 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⁴³⁾ 국립 민속박물관 소장 조바위에는 장수를 나타내는 국화 테두리 장식에, 富貴多男, 壽福

康寧의 문자와 花紋과 나비 등이 적혀 있었다.

남바위는 방한복의 하나로 남녀노소 구별없이 누구나 썼다. 어린이는 녹색 걸감에 적색 안감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 首飾類의 紋樣은 길한 징조를 의미하는 鳳凰, 鶴, 蝴蝶과 吉祥語, 花紋을 곁들여 표현했다. 남바위 둘레에 대는 毛皮는 값이 비싸 이를 보고 착용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었다.

⑤ 복 건

복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나 유생들이 심의, 학창의와 함께 사용했던 관모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남자아이 돌에 장식적 쓰개로 쓰게 된다. 남아용으로 장래를 비는 마음에서 복건의 테두리를 돌아가며 鶴, 太極, 雷, 花 등의 문양을 사용했다. 또한 호랑이의 형상을 한 독특한 형태의 호건도 있다. 복건 앞부분에 壽자를 부착하고 머리부분 양쪽에는 영리하라고 호랑이의 귀를 양볼에는 총명하라고 호랑이의 눈을 상징적으로 繡나 모양을 부착시켜 이를 호건이라 했다. 5~6세까지 착용하며 거죽은 검은사 안감은 남색사로 받쳐 색의 조화를 이루고 양반의 자제는 금박을 장식했다.⁴⁴⁾

복건에는 吉祥語紋, 金箔이 활용되었다. 이것은 美的인 가치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吉祥的인 意味에 의거하여 선택되었으며 다른 文樣과 함께 표현되거나 여러자가 같이 쓰여 吉祥的 意味를 강조했다.

특히 애용된 문자는 壽, 福, 壽이며 富貴多男, 壽福康寧 등이 있다. 壽, 福, 壽자는 원형, 장방형의 형태로 표현되거나 주위를 雷紋으로 장식하기도 했다.⁴⁵⁾

⑥ 주머니

주머니는 왕이 돌날로부터 王位에 오를때까지

40) 이경자, 「韓國服飾史論」, 일지사, 1988, p.310.

41) 김영숙, 전계서, p.131.

42) 유희경, 전계서, p.296.

43)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전계서 20권, pp.346~347.

44) 석주선, 전계서, p.204.

45) 원미영, 「韓國服飾에 표현 金箔紋樣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17.

항상 婦女의 짓을 하며 錦囊 차기를 좋아했다⁴⁶⁾는 것은 新羅以來의 전통이며, 高麗時代의 「高麗圖經」貴婦條에 檄攪勒巾에 采條로 金鐸을 달고 錦香囊을 많이 차는 것을 귀히 여겼다⁴⁷⁾ 하였듯이 금향낭뿐 아니라 繡囊도 찻을것이므로 囊의 이용도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조선조에 내려와서도 여전했던 것⁴⁸⁾으로 보인다.

주머니에는 여러 가지 문양의 繡가 많이 이용되었는데 금박과는 달리 여러 가지 색실로 조화를 꾀하면서 문양을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생동감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繡의 문양에 따라 山水囊, 梅花囊, 桂枝囊, 五福囊, 五方囊, 十長生囊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으며, 형태상으로는 角囊, 夾囊으로 부르는 두루주머니가 있다.

귀주머니는 양옆에 모가 나있는 것으로 남자용은 남색, 고동색 등을, 여자용은 다홍색, 푸른색, 자주색 등을 바탕색에 맞추어 택하고 주머니에 길상문자를 수놓고 아랫부분에는 三山, 不老草, 파도, 雙鶴 등을 오색으로 수 놓았다.

두루주머니는 모양을 화사하게 하기 위해 주머니에 십장생, 모란, 연꽃등을 수놓기도 한다.

⑦ 타래버선

흰색 목면에 솜을 두어 누벼서 만든 어린이용 버선으로 버선 양볼에는 花紋을 수놓고 버선코에는 홍색실로 술을 달았다. 또 남자아이는 남색, 여자아이는 홍색의 천으로 버선 입구에 선을 두르고 뒤쪽에는 남색, 홍색, 흰색의 끈을 달아 발목 앞에서 묶어 버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였다.

2) 의 미

전통 아동복에 사용되었던 문양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고리, 치마, 바지보다는 부속품으로 사용된 땡기나 머리쓰개 종류인 굴레,

조바위, 남바위, 복건 등에서 문양이 활용되었다. 삼국시대부터 여러가지 무늬가 벽화에 쓰여졌으며 초자연적인 힘으로 부터의 보호 받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용된 문양들의 의미를 몇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① 吉祥의 表現

땡기, 굴레, 조바위, 남바위, 복건 등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吉祥 紋樣은 아이들의 장래를 기원하며 행복, 富貴多男, 福, 壽, 富貴康寧 등의 소망이 포함되어 있다.

幾何紋樣이 쓰였으며 문자의 도안은 글자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기도 하고 꽃 또는 다른 무늬와 복합해서 구성하여 조화를 이룬다. 幾何紋樣의 경우에는 점, 선 등의 엇갈리게 만든 추상적인 무늬로 단독 문양보다는 다른 주제 문양을 장식해 주는 것이 특색이다. 幾何紋樣은 吉祥의 내용과 결부시켜 여러가지로 변형된 전반적인 생활 장식으로 이용되었다.

② 종교적인 믿음의 표현

옛사람들은 의복, 도자기, 장신구, 자수품 등의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에 상서롭고 기쁜일을 가져다줄 조짐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즐겨 사용했다. 그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상징무늬들은 그 무늬자체로서도 부적의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중에는 신화, 무속, 불교, 유교, 도교의 종교적인 사상과 관련된 문양들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가 풍기는 위엄과 勇力 날카로운 발톱 등은 邪物을 물리치는 呪力이 있는 것으로 삼았다. 虎紋은 남아의 복건에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호랑이는 짐승중의 왕을 대표하여 이마에 주름잡은 王자는 동물중의 동물임을 상징하며 강력한 용력과 위엄을 呪力으로 이용했다.

동양의 관념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장

46) 釋一然 著, 「三國遺事」卷二紀異第三 景德王條.

47) 徐兢, 「高麗圖經」卷二十婦人 貴婦條 參照.

48) 유희경, 전계서, p.367.

생에 대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은 장수와 뜻이 높고 바른 것의 상징이며 학은 도교가들에 의해 영생의 천사중의 하나로 추앙받아 온 새로써 흔히 부리에 버섯을 물고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되곤 한다.⁴⁹⁾ 이는 구름이나 박쥐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③ 자연과의 융화

동양에서는 경험과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농경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천문과 기상의 변화에 관심이 컸으며 그것은 하늘의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이념과 직결되어 점성적으로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아동복에 활용되었던 또다른 문양은 주로 자연의 動植物에서 그 주제를 얻는 것이었다. 永遠, 不變, 幸福, 長壽, 多男, 清潔, 富貴 등을 의미하는 구름, 바위, 물, 산, 학, 물고기, 나비, 모란 이외에 국화 당초, 목단 당초등 당초문양, 표주박 문양 등이 사용되었다.

植物紋도 역시 長壽, 豐饒, 繁榮, 多福 등을 뜻하고 있다. 저고리의 깃, 고름용으로 花紋이 많이 활용되며 오늘날 제작되고 있는 아동한복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3. 전통 아동복의 색과 문양의 계승

1) 전통 아동복 색의 계승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과 국립 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나타난 유아 한복의 색은 분홍, 연두, 색동, 다홍, 노랑, 자주, 청색, 옥색 등 다양했다. 문헌과 실물제작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아동복의 색을 보면 유품인 전통 아동복과 다르지 않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 아동복에 활용되는 색을 중심으로 표를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표 1>에서 제시되었던 조사된 아동한복의 치마 저고리 외 37점 실물 제작

된 65점의 구체적인 분석내용이다.

박물관 유품의 아동복 치마 저고리에 주로 사용되었던 색은 적·황·색동이었다. 여아의 붉은 치마의 노랑저고리는 하나의 상징처럼 활용되었으며 색동도 널리 이용되었다. 현대에 제작된 아동복 실물에서는 적색과 황색 및 색동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박물관 소장 유품인 아동한복에서 활용된 색상과 유사하다. 그리고 현대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복에서는 꽃분홍색이나 연분홍색 파스텔톤의 색상을 동색 및 유사색 계열로 조합한 치마 저고리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즉 현대적 감각에서 선호되는 색상이 아동의 한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편 아동용 두루마기는 전통과 현대를 비교해 볼때 비교적 색동의 색상이 활용되고 있는데 청색과 색동 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수와 장식금박이 가미된 형태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여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땀기는 전통의 형식을 보면 흑색이나 적색에 금박문양을 새겨넣은 형태가 가장 많이 있는데, 현 시중에서 판매되는 땀기의 색상에는 적, 흑색에 국한되지 않으며 분홍계통에 금박의 땀기도 활용되고 있다.

글래는 땀기와 유사하게 박물관 유품의 경우에는 적색과 흑색을 주로 활용했으며 현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에는 적색과 더불어 색동을 활용한 경우도 있다. 글래는 전통의 것이나 현대의 것이나 술을 적절히 활용한 점은 유사하다.

아이들의 주머니인 오방낭자는 박물관 유품에서는 주로 오방색이나 적색이 쓰였다. 현대에 제작된 실물에는 부속 장식품으로써 오방색과 적색 등이 활용되었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방낭자는 분홍색 계열의 색상도 사용되고 있다.

남아들의 복건은 박물관 유품이나 현대에 제작된 실물 모두 흑색이 사용되었는데 이 때 금박이나 수를 놓아 사용되었다. 흑색의 중압감이나 어

49) 朴永眞, 전계논문, p.11.

<표 2> 아동한복의 색의 계승

종 류	구분	색		적색	황색	흑색	청색	백색	색동	기 타
		점	색							
치마저고리	유품	4		4	4		1	1	1	
	실물	12		4	4		1	1	1	초록, 연두, 옥색, 다홍, 분홍
까치두루마기 오방장	유품	4			1				3	연두
	실물	8			1				5	연두, 녹색
당 의	유품	1								연두
	실물	3							1	
바지·저고리 마고자	유품	3	1	1			1	2		고동, 살구, 초록, 자주, 보라
	실물	13	3	3				1	1	
전 복	유품	2					2			
	실물	5					5			
댕 기	유품	4	1			3				
	실물	2	2							
널 레	유품	6	2			1	3			연두, 하늘, 자주
	실물	4	2			2				붉은술, 오색술
남바위·조바위	유품	4	1			3				
	실물	4	1			3				
주 머 니	유품	3	2						오방색	하늘색술
	실물	5	2	2					오방색	색동술
복건·호건	유품	6				6	6			
	실물	7				5				

두움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록 금박과 수를 이용하여 화려함과 주의집중을 불러 일으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동 한복의 종류에 따라 색상 활용에 대한 박물관 유품과 현대에 제작된 실물에서의 특기한 내용은 치마, 저고리, 복건, 오방낭자의 기본 색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현대의 아동 한복 중에는 색동을 비롯한 분홍계열, 연하늘색계통의 조화를 꾀하는 등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여아의 치마저고리, 남아의 바지 저고리 및 마고자에서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색상이 갖는 의미에 쫓

점을 두면 박물관 소장 유품인 아동한복의 제작과 색활용은 현대로 오면서 그 색상의 중요성도 인지는 하나 현대적 선호색상이 활용되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의복에 활용하므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증시하는 경향도 엿볼 수 있다.

2) 아동한복 문양의 계승

문양도 색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헌과 실물제작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아동복의 문양을 살펴보면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현대에는 금박의 문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전통적 무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문명속에서 급속

히 상실되고 있는 인간성과 윤리관을 회복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자연의 순리에 순종하는 겸허한 정신세계를 현대생활에 요구되는 문화 상품으로 재창조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과 뜻이 있다.

박물관 소장 아동한복에 나타난 문양이 현대 아동 한복에는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표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는 <표 1>에서 조사된 전통 아동한복의 문양을 분석하기 위한 내용이다.

문양을 전반적인 분석을 해 본 결과 한복 종류에 따라 한가지의 문양만을 사용한 경우는 드물고 動物紋과 自然紋, 植物紋과 自然紋, 幾何紋과 吉祥語紋, 吉祥語紋과 植物紋 등의 복합적인 문양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천에 문양이 없거나 누비형식으로 된 경우가 있어 문양 표시도 전체 한복 숫자와 동일하지

않다.

한복 종류에 따른 문양 사용의 경향을 보면 치마·저고리는 植物紋·吉祥語紋·自然紋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두루마기는 吉祥語紋이 많이 쓰였다. 마고자·바지·저고리에도 植物紋과 吉祥語紋, 自然紋 등이 사용되었다.

댕기의 경우는 특히 動物·植物·吉祥語紋의 혼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굴레·오방낭자·복건 등도 植物·吉祥語紋 등이 사용되었다. 이들 문양은 전통적인 문양이 비교적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금박문양, 천에 아로새긴 문양 나아가 繡를 이용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나 있다.

색과 문양 사용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현대적 감각이 나는 색상을 사용하면서도 전통적인 문양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전통미와 현대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표 3> 아동한복의 문양의 계승

종류	점	문양						기 타
		동물문	식물문	길상어문	기하문	자연문		
치마·저고리	유물	4		1	1	1	無紋	
	실물	12	1	3	2	1		
까치두루마기 오방낭	유물	4	1	1		2	식물문·길상어문 혼용	
	실물	8		3	3	1		
바지·저고리 마고지	유물	3		1	1		無紋	
	실물	13	1	4	2	2		
전 복	유물	2			1	1	식물문·길상어문 ·기하문 혼용	
	실물	5	1	1	3	2		
댕 기	유물	2	3	2			동물·식물· 길상어문 혼용	
	실물	2	1	2	1	1		
굴 레	유물	6	2	3	1	1	동물·식물· 길상어문 혼용	
	실물	4	2	3	3			
남 바 위 조 바 위	유물	4		2			식물·길상어문 혼용	
	실물	4		2	1			
쭈 머 니	유물	3	1	1	1	1		
	실물	5	2	1		1		
복건·호건	유물	6	1	1	3	1	동물·식물·길상 어문·기하문 혼용	
	실물	7	2	2	3	2		

즉 색이든 문양이든 하나의 변화를 피하면서도 옛것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색과 문양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가능해 지리라 생각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전통의 한복색과 문양이 변질되거나 개량 한복 등의 보급으로 한복의 원형을 전수해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해왔으나 이런 방법으로 조화를 피해 나간다면 한복의 계승에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된다.

Ⅲ. 결 론

박물관 소장 유품인 아동한복에 나타난 색과 문양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날 아동복 한복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아동용 한복의 발전적 계승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과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론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아동한복의 유품과 실물을 중심으로 그 색상과 문양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여아용 한복 치마와 저고리에는 주로 노랑 저고리와 붉은 치마, 색동 등이 전통 아동복 유품과 다름없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어린 여아들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색깔과 특징으로 인식될 정도라고 판단된다. 어린이는 한복을 연상하면 자연스럽게 색동을 연상케 되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민족적인 정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는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통문양과 색상이 현대의 아동용 한복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확인하기에는 어려우나 일면 부분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각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현대적 문양에 전통적인 오색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통문양에 현대적인 색감이 느껴지도록 색을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복문화의 계승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바로 생각된다. 특

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현대의 아동 한복으로 제작되는 것은 옛 아동한복의 색과 문양에 가깝게 제작하려는 노력이 커서 옷감이나 문양이 전통한복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한복은 가격의 저렴화와 색채의 화려함을 지향하여 현대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현대는 생활양식이나 감각, 사회환경 등이 과거와 매우 다르게 변화했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전통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소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통의 멋을 최대한 되살리면서도 현대의 색상이나 문양, 감각에 뒤지지 않는 한복 구성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현재 아동용 한복에는 제한적인 활용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의 아동용 한복에는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 등을 비롯하여 여아에게는 땡기, 글레, 남아에게는 복건, 호건 그 외에 오방낭자 등 한복 부속품이나 의류 등이 적절하게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복 문화, 특히 아동용 한복의 바른 전수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치마 저고리 착용 정도의 한복 입기를 지양하고 보다 격에 맞게 갖추어 입을 수 있는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써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도 바르게 격에 맞추어 한복을 입게 될 것이라 본다. 본인의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에 대한 향수가 현시점에서 한복을 입을 때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어릴적부터 한복을 보고 입어 보아 자연스럽게 그 의상과 친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문양과 색상도 자주보고 친숙하게 하므로써 전통과 한복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나 거부감을 탈피하고, 우리의 문화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바람직한 한복 문화의 정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1) 「經國大典」
- 2) 「宮中撥記」藏書閣藏
- 3) 金尙軾, 「三國史記」
- 4) 釋一然, 「三國遺事」
- 5) 「世宗實錄」,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6) 李如星, 「朝鮮服飾考」
- 7) 安鼎福, 「星湖僊說類選」
- 8) 徐 兢, 「高麗圖經」
- 9) 千村典生, 「服裝 色彩」, 동경 鎌倉書房, 1970.
- 10) 김분옥, 「한복구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2.
- 11) 김영숙, 「韓國 服飾史 辭典」, 民文庫, 1988.
- 12) 朴亨映, 「傳統韓服 作品集」, 도서출판 대흥기업, 1993.
- 13) 석주선, 「韓國 服飾史」, 寶晉齋, 1985.
- 14) _____, 「衣」, 高麗書籍株式會社, 1985.
- 15) _____, 「冠帽와 首飾」,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3.
- 16) 온양민속박물관 학원연구실 특별전 도록2, 「조선시대의 관모」, 온양민속박물관, 1988.
- 17) 유희경, 「韓國 服飾 文化史」, 敎文社, 1986.
- 18) 윤에근, 「색채학 개론」, 도서출판 콘바사포, 1984.
- 19) 이경자, 「韓國服飾史論」, 일지사, 1988.
- 20) 이리자, 「이리자 韓服」, 향한재, 1996.
- 21) 임동권, 「한국민속논문」, 동경문화사, 1973.
- 22) 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민족 문화 대 백과사전」, 웅진출판주식회사, 1991.
- 23) 조효순, 「한국인의 옷」, 밀알출판사, 1995.
- 24) _____, 「한국 복식 풍속사 연구」, 일지사, 1988.
- 25)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 이데아, 1988.
- 26) 河龍得, 「韓國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明志出版社, 1993.
- 27) 黃沅根, 「高麗圖經을 통해 본 韓國文樣史」, 悅話堂, 1978.
- 28) 강윤숙, 「服飾의 象徴的 意味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29)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30) 김용숙, 「이조후기 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아세아여성연구 제5집, 1996.
- 31) 김진아, 「여자한복의 문양과 배색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나승미, 「색동에 나타난 色의 象徴性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33) 박경자, 「한복의 구성면에서 본 상징성」, 한국복식문화논고, 신구문화사, 1983.
- 34) 박영진, 「한국전통의 주제분류를 통한 변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35) 심화진, 「韓國의 傳統兒童服 に見られる色ト ン研究」, 衣生活, vol. 38, 衣生活研究會, 東京 1995.
- 36) 원미영, 「韓國服飾에 表現 金箔紋樣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37) 이미석, 이선재, 「향(香)집에 관한 연구」, 「服飾」 33호, 1997.
- 38) 이은미, 「전통색채에 관한 연구-삼국시대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39) 임희숙, 「朝鮮時代 織物에 나타난 紋樣 考察」,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40) 장지영,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식상에 나타난 문양과 자수의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41)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조형연구, 제3권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연구소, 1984.
- 42) 정현주, 「조선시대 조선시대 복식문양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43) 한명숙, “한국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ABSTRACT

**A study on the Color and Shape as Shown
 in Traditional Childrens Wear**
 —Focusing on museum relics
 and manufactured item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more rational way of inheriting and developing traditional Korean HanBok children wear by means of looking at the color and shapes of traditional Korean HanBok and also to find a way to apply this to today's children HanBok wear. The process taken was first to study related literature and its theories and to research museums to find what few traditional HanBok there are and then to compare these findings with new books and personal pieces kept by individuals. We also compared with HanBok children wear now sold at markets.

The results of these findings show the following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We have found that modern children HanBok utilized the same yellow blouse and red skirt combination as before. These nearly in all cases represented the colors for girls. To most koreans these combination colors are a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 children wear naturally accepted by most koreans without any resistance. Also a definite relation with traditional and modern children wear in the sense of color and shape wear hard to substantiate but we could find harmony between the two.

In other words a mixture of modern shapes and traditional colors could be found or vice versa. This is an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when trying to inherit traditional HanBok culture. Modern times has seen great change in lifestyle, feelings and social environment. In order to create harmony between tradition and present day customs a certain mixture is required. Therefore we need to maximize traditional flavor and design with present day design emotions.

Another issue is that right now children HanBok is only being utilized on a restricted scale. It is a shame that in today's children HanBok that added to the skirt, pants and overall wear that the headwear, purse and other accessories are not being used. Therefore the HanBok culture, especially for the correct succession of children HanBok, must refrain from such restricted use of accessories and work to advertise the widespread use of proper HanBok wear thereby upholding the rightful use of HanBok. As I have mentioned in my other studies it is ones memory of early HanBok wear which greatly affects a grown-up, so we should wear HanBok in the right way from an early age and become accustomed to its shapes and colors thereby become friendly with traditional HanBok wear. This I believe will lead to overcoming prejudice and disapproval of HanBok and to a more affirmative view towards our cultural heritage.

Looking from a design point of view, international design of a nation's traditional wear can only come from a correct understanding of ones traditions, this then becoming a foundation for creative design. Seen from these

aspects a re-creation through the meaningful activities of studying traditional shapes and

colors of HanBok is the best way to forming a true HanBok tradition.